

## 아시아 신흥국은 2021년까지 경제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일본 도쿄, 2021년 2월 4일 -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1년까지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OECD 개발 센터가 오늘 발표한 최근 "2021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 전망 보고서: 디지털화를 위한 자원 배분(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21: Reallocating resources for digitalisation)"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 신흥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및 인도의 실질 GDP는 2020년에 평균 1.7%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저(低)기저 효과로 7.4% 반등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의 평균 실질 GDP는 2020년에는 3.4% 축소되었다가 2021년에 5.1% 성장할 전망이다. 2020년의 부정적 경제 여파는 특히 인도(-9.9%)와 필리핀(-9.0%)에서 두드러진다. 이와는 정반대로 베트남은 2020년 역대 생산 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하며 2.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 상황이 개선되고 각국 정부가 막대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요와 투자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시장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외 부문의 경제 회복 기여도가 하락할 전망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수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의 자산 가치가 악화되면 은행권에서 경기 회복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각국의 팬데믹 관리 전략과 정책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2021년 경제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다. COVID-19 백신 배포를 비롯해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 계속된 가계 및 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 및 재정 정책 여력이 악화되면서 아시아 신흥국 정책 담당자들은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를 개선하고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 보건 및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두 분야의 정책 담당자들은 기존 인프라를 비롯한 규제 장벽과 인적 자본의 제약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건 분야의 경우, 명확한 규제를 통해 보건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건 서비스를 폭넓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구 지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교육 분야의 경우,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경제 부문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직업 기술 교육 훈련(TVET)은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과 재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누구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보건 및 교육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은 제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했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기술을 활용해 시장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아시아 신흥국 일부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는데, 전자상거래와 운영 및 무역 채널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국가별로 준비도가 다르고 경제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 기술 도입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장애 요인으로는 충분한 인프라 및 인력의 결여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상의 한계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은 점차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는 한국, 일본 및 스위스 정부와 유럽 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021 년판 "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economic-outlook-for-southeast-asia-china-and-india/volume-2021/issue-1\\_711629f8-en](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economic-outlook-for-southeast-asia-china-and-india/volume-2021/issue-1_711629f8-en))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개발 센터의 Kensuke Tanaka 아시아 지역 담당관([Kensuke.Tanaka@oecd.org](mailto:Kensuke.Tanaka@oecd.org), +33 6 27 19 05 19), OECD 개발 센터의 Bochra Kriout 미디어 담당관([Bochra.Kriout@oecd.org](mailto:Bochra.Kriout@oecd.org), +33 1 45 24 82 96) 또는 OECD 도쿄 센터의 Yumiko Yokokawa 미디어 홍보 관리자([Yumiko.Yokokawa@oecd.org](mailto:Yumiko.Yokokawa@oecd.org), +81 3 55 32 00 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